



# 김나정

이제 부디는 독자들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쓰고 싶어요.



# 장혜련

김승옥 선생님이 김수영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텍스트들이 저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 comer interview

### 젊은 시인,

### 젊은 작가의

## 2003년 신춘문예 당선자 4인에게 듣다

문학은 왜 하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지닌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문학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문학을 하는 일은, 미디어 독해력(Media Literacy)이 어지간히 결여된 문화지체자들의 시대 착오적인 행위는 아닐까? '문학의 위기'라는 풍문이 흉흉하게 들려오는 이때 여전히 문학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래 한국문학의 주역이 될, 2003년 신춘문예 당선자 4인을 만났다. 김나정(29, <동아일보> 소설부문), 장혜련(31, <조선일보> 소설부문), 김병호(32, <문화일보> 시부문), 김일영(33, <한국일보> 시부문)이 그들이다. 모두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젊은 글꾼들이다. 학생에서부터 주부, 대학강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각각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춘문예 당선자의 영예를 안았다. 풋풋한 패기가 엿보이는 이들에게 문학적 포부를 들어보았다.

기자 ● 문단고시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무척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셨는데,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김병호 ● 당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당선 통보를 받고 나니 겁이 나기도 하고, 빛을 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저보다 잘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혜련 ● 저는 신춘문예에 처음으로 응모를 했던 것이고, 제 작품이 소위 얘기하는 '신춘문예용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

에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왔을 때 믿지를 않았죠. 전화를 주신 기자분의 이름을 신문사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선이 됐다는 실감이 났던 것은 신문사에서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김나정 ● 저 역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발신자 추적을 했을 정도였어요.(웃음) 지금도 발이 지상에서 30센티미터 정도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김일영 ● 저는 우선 문학수업 기간 중 신세를 진 분들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시를 써서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기자 ● 앞으로 어떤 글들을 쓰고 싶으세요?

장혜련 ● 무엇을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작품 자체로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론가들만이 읽을 수 있는 소설보다는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어요. 따뜻한 작품 말이죠. 물론 대중성은 경계를 할 생각입니다.

김나정 ● 당선되기 전까지 쓰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쓰는 편이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보다 시간이 부족한 편인데요, 이제부터는 독자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쓰고 싶어요.

김병호 ● 현실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 이를테면 일상이 일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착해서 시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김일영 ● 무엇을 쓰겠다고 규정하기보다는 시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 시가 나에게 과연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



# 김병호

시를 쓰면서도 읽는 것이 만족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 이런 불만이 끊임없이 시작詩作에 대한 욕구를 추동하는 것 같아요.



# 김일영

시가 나에게 과연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 당찬 포부

지면서 시를 쓰고 싶어요.

기자 ● 습작 시절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있다면?

김일영 ● 허만하 시인의 지나간 시간에 대한 섬세한 애착, 그리고 백석 시인의 근대 사회의 공동체적 체험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혜련 ● 한 분을 뽑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김승옥 선생님의 감수성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텍스트들이 저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나정 ● 저는 제 소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배수아, 백민석, 전경린의 소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실험정신, 감각 같은 것들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기자 ● 이제 막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신인의 입장에서 요즘 문학의 위기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 ● 저는 문학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건 일종의 엄살이 아닐까요. 가령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라디오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라디오는 텔레비전과 대별되는 고유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학에 대한 전망은 위기의 진단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혜련 ● 지금 갓 등단한 제 입장에서는 문학의 위기 같은 외풍에 일일이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문학적 관점을 세우고 치열하게 견지해 나가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인의 자세 아닐까요?



《2003 신춘문예 당선소설집》  
장혜련 외 지음 | 프레스21 |  
416쪽 | 값 10,000원




《2003 신춘문예 당선시집》  
김병호 외 지음 | 문학세계사 |  
194쪽 | 값 8,000원

김나정 ● 문학은 어차피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학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접점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문학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글은 왜 쓰기 시작하셨어요? 왜 글을 쓰세요?

김일영 ● 고등학교 1학년 시화전에 시를 출품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제게 참 순정적인 기억으로 다가옵니다. 막연하게 시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아마 제가 시에 들리지 않았나 싶어요. 밥을 먹는 것처럼 시를 쓰고 싶어졌죠.

김병호 ● 저는 사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노래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재주가 없어요. 시를 쓰면서도 저는 자기만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불만이 끊임없이 시작詩作에 대한 욕구를 추동하는 것 같아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역류의 물줄기 하나를 가르는 일, 그게 문학의 역할이며 존재이유가 아닐까. 2003년 신춘문예 당선자들을 만나면서 기자는 그 어떤 기성의 논리에도 오염되지 않은, 푹푹하고 진지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류와 맞붙의 패기가 지치지 않고 빛날 때, 한국문학에 드리워진 암울한 그림자가 걷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의 당선작품은 각각 《2003 신춘문예 당선소설집》(프레스21)과 《2003 신춘문예 당선시집》(문학세계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도연 기자